

numbers 제 113호



주요 내용

2021.10.01

- 이번 주 주제 : [2021 자살 통계]
대한민국 자살자 하루 36명, OECD 여전히 1위!
- 최근 언론보도 통계
 - [2021 언론매체 신뢰도]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유재석' 2위
 -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우리 국민 절반가까이, 4촌 이상은 친족으로 인식하지 않아!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사회 통계

대한민국 자살자, 하루 36명, OECD 여전히 1위!

사흘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3,195명(하루 36명꼴)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20대의 자살률은 코로나19 이후 일 년간 13% 증가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도 여전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오는 과열된 경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심리나 정신과 치료에 대한 터부와 기피감 등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된다.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 한 가지는 아닐테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괴로워하며 삶을 고민하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한다는 것이다.

자살사망자의 94%가 자살 전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유가족 중 75%는 경고신호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자살을 고민하는 자의 경고신호만 미리 파악해도 안타까운 일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제113호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과 자살 사망자와 자살 시도자에 관한 데이터를 소개한다. 어려운 시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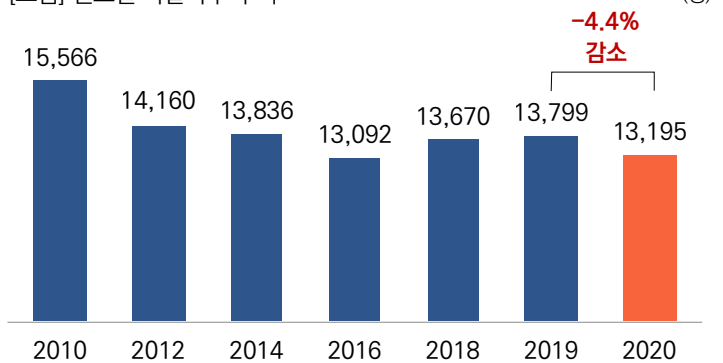
2020년 자살자 13,195명 하루에 36명꼴로 자살!

- 지난 9월 2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3,195명으로 이를 1일 자살자로 환산하면 36.1명이고, 시간당으로는 1.5명꼴로 나타났다.
- 성별 자살자 비중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은 특징을 보인다.
- 2019년 대비로는 자살자수가 604명(-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해 자살자가 늘 어날거라 예상할 수 있지만,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과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개 재난이 발생한지 2년 후부터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살률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 2020년 자살자 통계



[그림] 연도별 자살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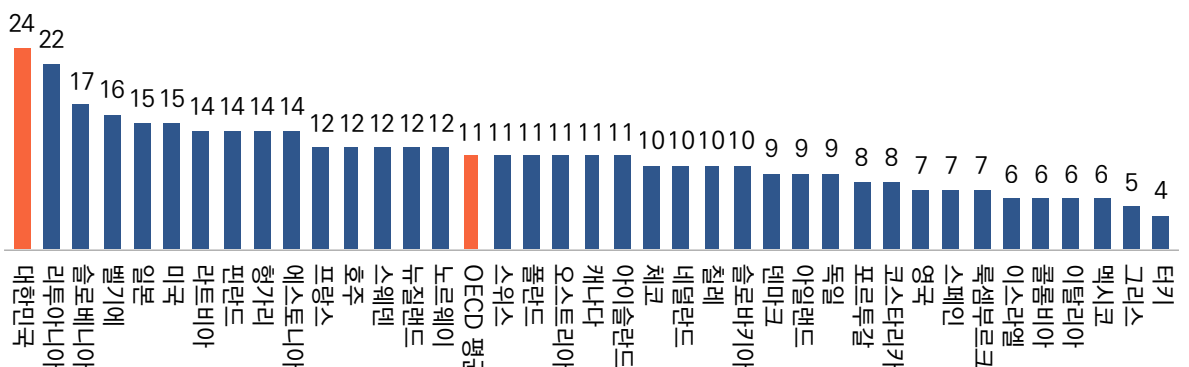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사망원인통계', 2021.9.28.

** 자료 출처 : 헬스조선 '재난 2년 후 자살률 증가.. 코로나19는 어떻게?' 2021.7.7.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42242>

● 우리나라 자살률, OECD 평균의 2.2배

-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을 비교해보면, OECD 평균이 1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4명으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의 2.2배에 달한다.

[그림] OECD 국가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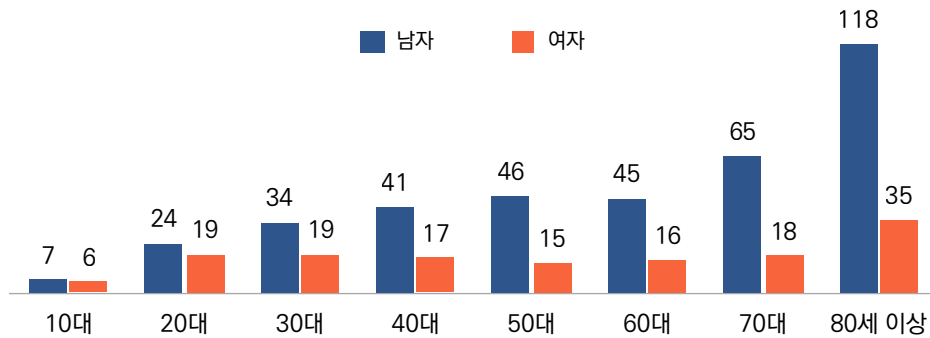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자료출처 : OECD.STAT, Health Status Data(2021. 9. 추출). 통계청 '2020 사망원인통계' 2021.9.28.

**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8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높아!

- 자살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 여자의 경우 20대에서 70대까지 자살률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반면, 남자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살률도 높는데, 40대부터는 여자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으며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 특히 70대 이상 남자의 자살률 증가폭이 매우 높아 주목된다.

[그림] 2020 성별 연령별 자살률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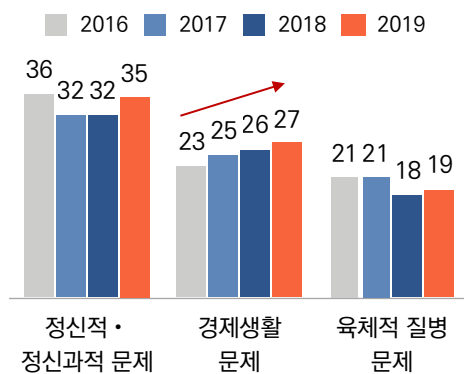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사망원인통계', 202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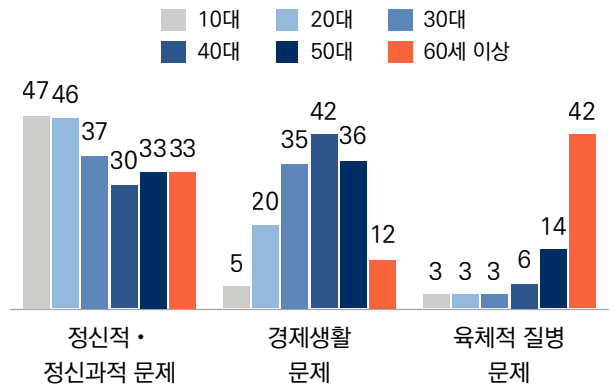
●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 매년 증가 추세!

- 자살 동기 중 가장 큰 것은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이며, 그 다음은 '경제생활 문제'로 나타났다. '경제생활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자살 동기는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10~30세까지는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가 컸고, 30~60세는 '경제생활 문제', 60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를 동기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2016~2019 자살 동기(상위 3위) (%)



[그림] 연령별 자살 동기(2019년,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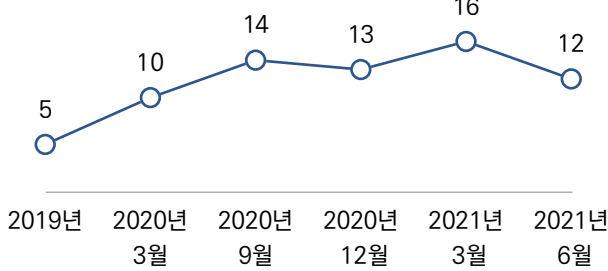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경찰청, 2015~2019 번사자통계.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1 자살예방백서', 202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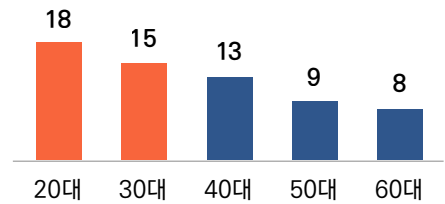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일반 국민의 자살 생각, 코로나 이전 대비 2.4배!

-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이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정신건강실태’를 추적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 2분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자살 생각을 한 적 있다는 비율이 우리 국민의 12%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의 5%보다 2.4배가 높은 수치이다.
- 연령별 자살 생각은 ‘20대’가 18%로 가장 높았고, ‘30대’ 15%, ‘40대’ 13%, ‘50대’ 9%, ‘60대’ 8% 순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살 생각 비율이 높다.

[그림] ‘최근 2주간 자살 생각 했었다’(‘그렇다’ 응답률 추이) (%)



[그림] ‘최근 2주가 자살 생각 했었다’ ‘그렇다’ 응답률(2021년 6월)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년 2분기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2021.07.26.(전국 성인 만19~71세 성인 2,063, 온라인 조사, 2021.06.15.~25)

2



20대 사망 원인, 절반 이상(54%)이 자살!

-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전체적으로 보면 1위는 ‘암’이고, ‘자살’은 5위인데,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즉 40대 이후 중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반해, 10대~30대까지 젊은층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 특히 20대 사망자의 경우 절반 이상(54%)이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자살 순위 및 비율(연령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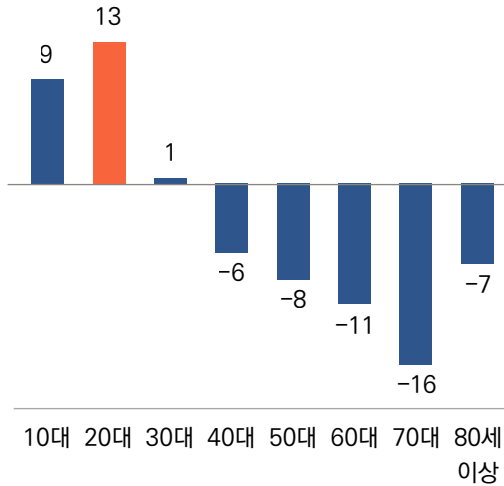
순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위	자살(41%)	자살(54%)	자살(39%)	암(28%)	암(37%)	암(42%)
2위				자살(21%)		
3위					자살(10%)	
4위						자살(5%)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사망원인통계’, 2021.9.28.

● 10대~20대, 자살률·자살시도율 코로나19 이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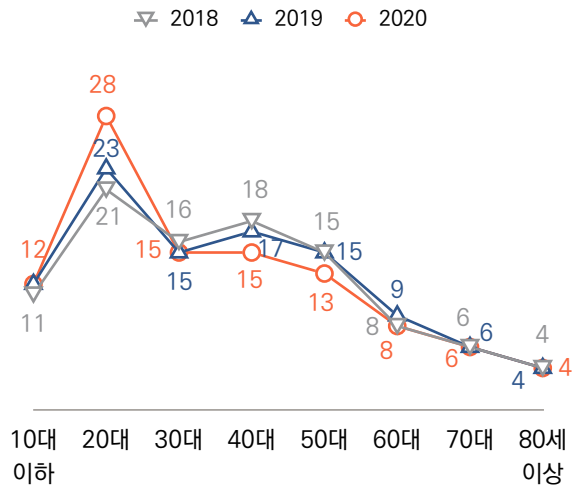
- 자살률은 고령일수록 높지만 자살률 증가 추세는 젊은층에서 두드러진다.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20대의 자살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 중 10대와 20대의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림] 2019~2020 연령별 자살률 증감률 (%)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사망원인통계', 2021.9.28.

[그림]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연령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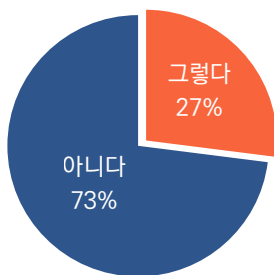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 한국생명중흥희망재단 보도자료, '자살 시도자, 사례 관리 받을수록 자살 위험 낮아져', 202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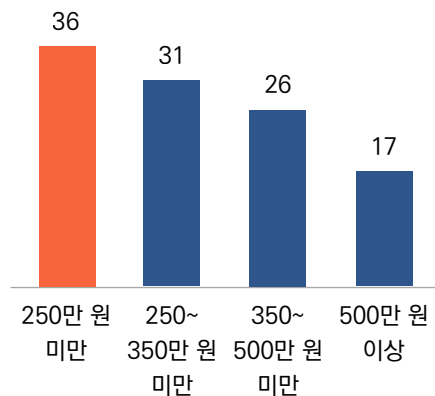
● 청년 4명 중 1명 이상 '코로나 이후 자살 생각한 적 있어'

- 그렇지 않아도 젊은층의 자살(시도) 증가가 문제인데, 코로나로 인해 더 심화되는 게 아닐지 우려가 된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청년의 27%가 '코로나 이후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무려 36%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2020년 2월 이후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 있다' (%)



[그림] 월 소득별 청년 자살 총동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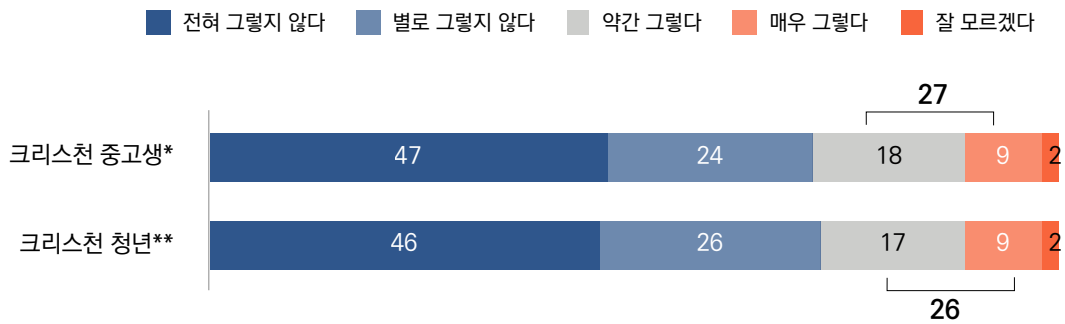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코로나19가 청년의 이행경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서울 거주 19~34세, 2011명, 2020.10.8.~2020.10.23). 경향신문, '[단독]청년들 '코로나 블루' 심각...'극단적 선택' 총동, 10배 늘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01207n39320?mid=m03>

● 크리스천 중고생/청년의 자살 충동률, 일반 청년과 다르지 않아

- 크리스천 중고생과 청년의 자살 충동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올해 초 실시된 크리스천 청년 대상 조사에서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약간+매우)는 비율은 26%였으며, 올해 4월 실시된 크리스천 중고생 대상 조사에서도 27%의 자살 충동률을 보였다.

[그림]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 '크리스천 중고생 조사', 2021.5., (전국 교회출석 중고생, 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4.8.~2021.4.23)

** 자료 출처 : 21세기교회연구소 · 한국교회탐구센터 ·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청년의 사회 및 신앙의식에 대한 조사', 2021.1. (전국 만19~39세 개신교인, 7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0.12.30.~202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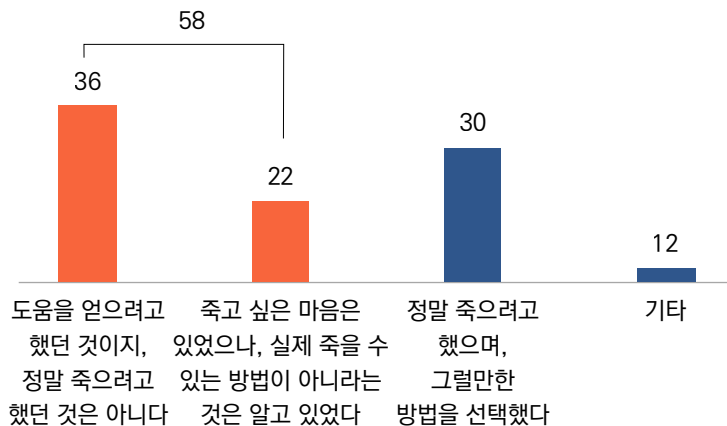
3



자살 시도자 1/3 이상, '도움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었던 것일까. 자살시도자의 36%는 자살 상황에 대해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죽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22%는 '죽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실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했다.
- 자살 시도자의 절반 이상이 갈 곳 없는 상황에 자살을 시도했으나, 죽으려는 의도였다고 보다는 도움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림] 자살 시도 진정성(자살 시도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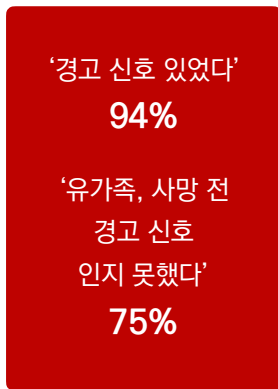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보도자료, '자살 시도자, 사례 관리 받을수록 자살 위험 낮아져', 2021.8.19 (2020년 응급실 사후 관리 사업 수행 병원 16개 시도 총 66개소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 22,572명 대상)

● 자살 사망자의 대부분, 자살 전 경고 신호 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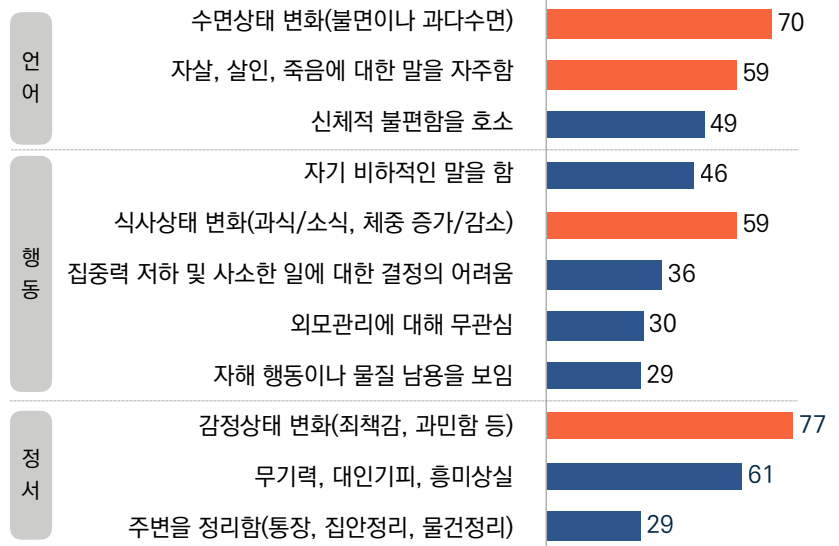
- 자살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94%의 자살 사망자가 자살 전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살자 유가족 4명 중 3명(75%)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림] 자살 사망자의 경고 신호(유가족 대상)



*자료출처 : 중앙심리부검센터 '2019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2020.11.27.(2016~2019년까지 445명의 자살자 유가족 면담)

[그림] 자살 사망자가 보인 경고신호 내용(중복 응답)** (%)



*자료출처 : 중앙심리부검센터 '2019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2020.11.27.(2016~2019년까지 445명의 자살자 유가족 면담 경고 신호 보낸 417명 조사)
** 보고서의 '명' 단위를 '%' 단위로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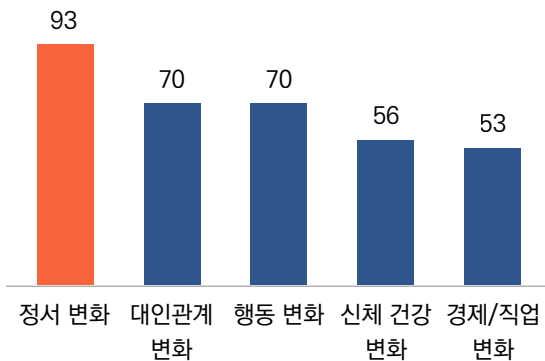
4



자살자 유가족 3명 중 2명, '중간 이상의 우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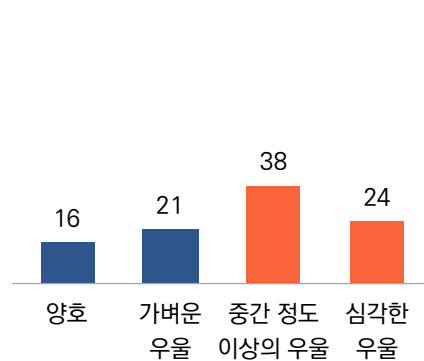
- 자살자 유가족의 대부분은 정서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절반 이상이 대인관계, 행동, 신체 건강, 직업 등 삶의 전반에서 변화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 이러한 변화는 우울로 이어져 3명 중 2명가량은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상태를 보였다.

[그림] 자살자 유가족의 일상생활 변화 경험* (%)



*자료출처 : 중앙심리부검센터, '2019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2020.11.27. (2016~2019년까지 533명의 자살자 유가족 면담)

[그림] 자살자 유가족의 우울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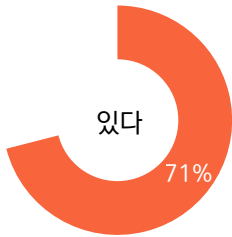


*자료출처 : 중앙심리부검센터, '2019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2020.11.27. (2015~2019년까지 683명의 자살자 유가족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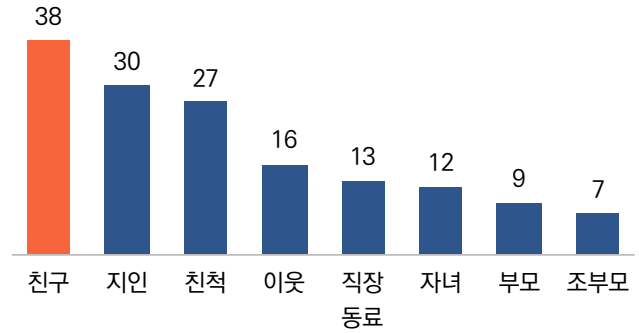
● 자살자 유가족 대부분, 사망 사실 알리지 못한 대상 '있다'

- 자살자 유가족은 삶의 큰 변화를 겪으며 힘들어하면서도, 소중한 사람을 자살로 잃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했다. 10명 중 7명이 자살 사망 사실을 알리지 못한 대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살에 대한 부정적 편견, 유가족에게 올 비난의 화살 등의 이유로 알리지 못했다고 했다.
- 알리지 못한 대상으로는 친구, 지인, 친척 등이 높았다.

[그림] 자살 사망 알리지 못한 대상 '있다' 비율 (유가족 대상)



[그림] 고인의 자살 사실을 알리지 못한 대상(유가족 대상, 중복 응답, 상위 8위)**



*자료출처: 중앙심리부검센터, '2019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2020.11.27. (2016~2019년까지 683명의 자살자 유가족 면담 조사)

** 보고서의 '명' 단위를 '%' 단위로 환산함.



시사점

우리 사회의 자살이 심각하다. 2020년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36.1명으로 발표되었다.(3쪽 참조) 이는 한 시간에 1.5명의 비율로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다. 이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의 이유도 다양한데, 10~20대까지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큰 자살 원인이며, 30~50대는 경제 생활 문제, 60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0~30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인데 특히 2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6쪽).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인간이 고도의 이성과 섬세한 감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살 현상을 생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잘 발달한 대뇌 때문이라고 한다¹⁾. 대뇌 피질은 창조적이고 조직적이며 모든 신경을 통제하는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 만큼이나 또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즉 엄청난 정신적인 자극에 의해 한번 그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 좀처럼 돌이키기가 힘들거나 영구적으로 못 쓰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비정상적인 행동(우울증, 폭력)들이 나타나거나 아노미(anomie)에 빠지면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자살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sui(자기 자신을)와 caedo(죽이다)의 합성어인데, 이는 스스로 자(自), 죽일 살(殺)의 자살이라는 한자어와 똑 같은 의미이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명 욕구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했으므로 그것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본능에 속하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 '본능적으로' 노력한다. 평소 '늬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분들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강한 생존 본능을 보이는 게 다반사이다. 그런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보통의 결단이 아니면 안된다.

생명 본능을 가진 인간이 자살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구조 요청'이기도 하다. 자살 시도자들을 가운데 '정말 죽으려고 했으며, 그럴만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비율이 30%이고,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정말 죽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비율이 36%였다(7쪽) 자살 시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자신을 구해달라는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자살 사망자의 94%는 죽기 전에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8쪽). 자살자들은 자살 시도를 하기 전까지 계속 구조 신호를 보내다가 그 신호를 알아주지 못하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그것이 자살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다.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은 사람들을 말할 수 없이 강하게 옥죄는다. 사람들을 엮어주고 지탱해 주던 사회적 관계망은 해체되어 각자도생을 해 나가야 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뒤처지거나 하면 자살의 위험성에 빠지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낸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 자살을 선택한 최근 일련의 자영업자들 이야기가 그 예이다. 우리는 이 구조 신호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가족과 주위 지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적으로는 삶이 어려운 교인, 이웃과 늘 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구조 신호를 알아챌 수 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전우익 선생의 책 제목처럼 더불어 사는 교회, 더불어 사는 이웃,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때 삶이 즐겁고 자살의 유혹을 덜 받게 된다. 성육신하여 세상 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과 더불어 사는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이 땅에 생명 지킴이, 생명 보듬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1) 광주드림, '동물들도 자살을 할까?'. 2019. 12. 2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082>)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2021 언론매체 신뢰도]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유재석' 2위
2.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우리 국민 절반가까이, 4촌 이상은 친족으로 인식하지 않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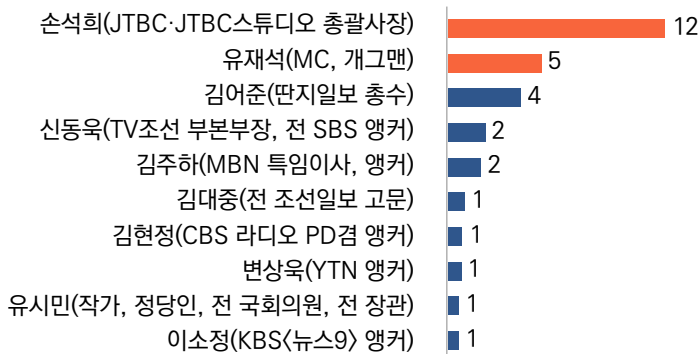
1. 2021 언론매체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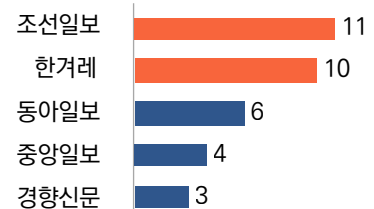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유재석’ 2위!

- 시사IN이 최근 실시한 2021년 언론매체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으로 ‘손석희’가 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재석’ 5%, ‘김어준’ 4%, ‘신동욱’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석희의 경우 지난 2019년 JTBC 뉴스룸에서 하차했는데도 여전히 1위를 차지하였으며, 유재석은 방송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언론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가장 신뢰하는 신문매체는 조선일보(11%)와 한겨레(10%)가 1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보수와 진보 양 극단의 신문매체가 각각 비슷하게 높아 국민들의 이념적 성향 분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1순위, 상위 10위) (%)



[그림] 가장 신뢰하는 신문 매체(1순위,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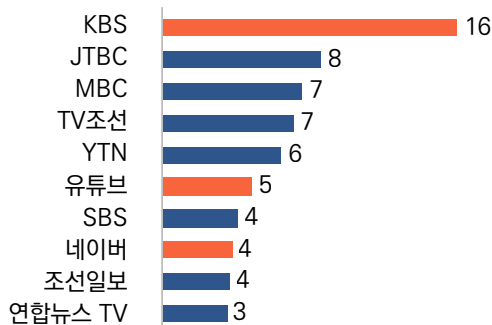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사IN, 2021.09.23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2위는 유재석',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5명,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칸타코리아, 2021.08.31.-0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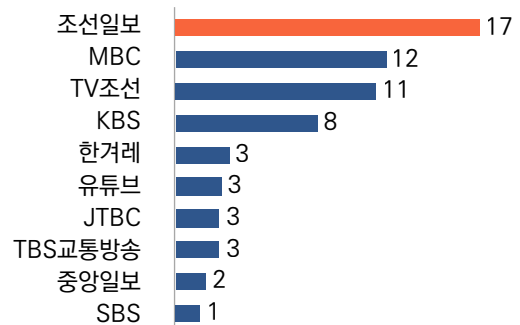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KBS' 1위

-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는 'KBS'가 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JTBC' 8%, 'MBC' 7%, 'TV조선' 7%, 'YTN' 6% 등 순이었다.
- 이번 조사는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에 한정해서 질문했는데, 유튜브(6위, 5%)와 네이버(8위, 4%)가 10위 안에 위치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로는 '조선일보'가 17%로 가장 높았고, 'MBC'가 12%, 'TV조선' 11%, 'KBS' 8%, '한겨레' 3%였다.

[그림]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1순위, 상위 10위) (%)



[그림]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1순위, 상위 10위) (%)



*자료 출처 : 시사IN, 2021.09.23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2위는 유재석',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5명,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칸타코리아, 2021.08.31.-0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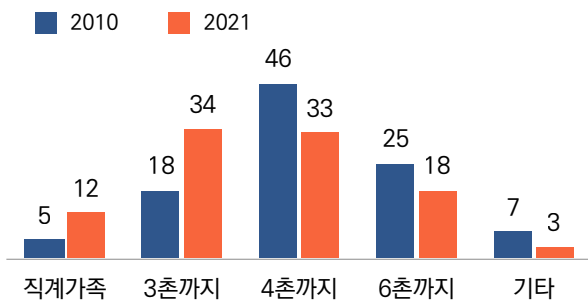
2.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 ‘4촌 이상’은 친족으로 인식하지 않아!

-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 12%, ‘3촌까지’ 34%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46%)가 4촌 이상은 친족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같은 조사에서 ‘3촌까지’로 응답한 비율이 18%였는데, 2021년(34%)에는 16%p 크게 증가하였고, ‘4촌까지’는 13%p 하락했다.
- 친족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한정지은 응답 역시 2010년에는 5%에서 2021년에는 12%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현행 민법이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 혈족/6촌 이내 인척’ 규정하는데 비하면 친족의 인식 범위가 매우 좁아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띄며, 향후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친족 범위(2010 vs 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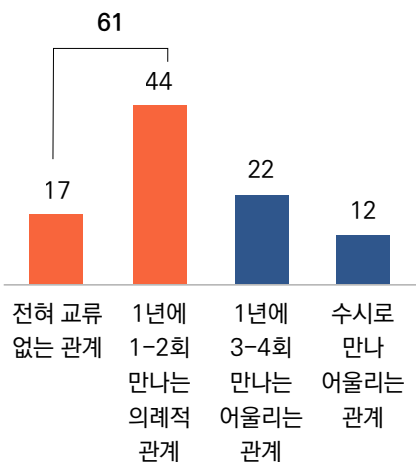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친족범위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2021.09.14.(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ARS 조사, 2021.07.06.-0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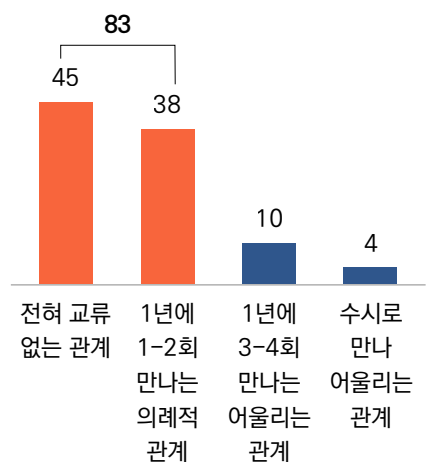
● 4촌 친척과 관계, 61%가 전혀 교류없거나 연 1-2회 만나는 정도!

- 친척과 관계에 있어서 ‘의례적 관계’(전혀 교류없거나 연 1~2회 정도 만남)라고 응답한 비율이 4촌과는 61%, 6촌과는 83%가 응답해 ‘4촌 이상’의 친척 관계에는 정서적 유대감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4촌은 17%, 6촌은 45%로 나타났다.

[그림] 4촌 친척과 관계 (%)



[그림] 6촌 친척과 관계 (%)



*자료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친족범위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2021.09.14.(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ARS 조사, 2021.07.06.-07.07)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466호\(2021년 9월 5주\)- 경제 전망,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임대료 전망](#)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47호 \(2021년 9월 5주\)-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등](#)

[‘K방역’, 정권 신뢰도 떠받치는 단 하나의 기둥 - 시사인](#)

시사IN_2021.09.20.

[포용·중재의 ‘무티 리더십’으로 위기의 유럽 구한 장수 총리 메르켈](#)

경향신문_2021.09.26.

* 정치 기획기사 : 주요 대선후보 SWOT 분석 (한겨레21)

(SWOT은 내부환경요인인 Strength(강점)과 Weakness(약점), 외부환경요인인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의 합성어인데, 대상을 4가지 측면 즉 SWOT을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이번 대선에 출마한 4명의 주요 후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내용을 실은 것이며, 교회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목회전략 수립에 있어 이 방식을 활용하면 전략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SWOT-‘공정’ 파고드는 싸움닭](#) 2021.09.21

[이낙연 SWOT-안정적이거나 미지근하거나](#) 2021.09.22

[윤석열 SWOT-좌고우면 않는 ‘흑백 리더십’](#) 2021.09.22

[홍준표 SWOT-시원시원한 ‘독불보수’](#) 2021.09.24

사회

[명절 전후 이혼 상담 폭증... 부부가 던지는 최악의 말은](#)

조선일보_2021.09.18.

[국민 10명 중 9명 “코로나 종식 불가능...매년 백신 맞아라”](#)

조선일보_2021.09.27.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227명 살해 혹은 살해 위협](#)

여성신문_2021.09.20.

일반

[학자금 대출 못갚는 청년들 “취업도 못해... 갚을 길 막막”](#)

동아일보_2021.09.25.

[‘돌봄’ 무관심한 사회... 아이가 책가방 쌀 때, 엄마는 퇴사 짐 싣다](#)

동아일보_2021.09.25.

[“당근이세요?” 2000만 명 넘어 20억 명 쓰는 서비스 꿈꾼다](#)

동아일보_2021.09.25.

사 회 일 반	홀로사는 노인 166만명...3명 중 2명 "노후준비 없다" 연합뉴스_2021.09.29.
	고령화 심화로 작년 사망자 수 30.5만명 '역대 최대' 연합뉴스_2021.09.28.
	카카오 규제 필요 57.7%...탈원전 반대 74.1% MBN_2021.09.28.
	'스마트폰 없이 못 살아' 국민 4명 중 1명 과의존 위험군 매일신문_2021.09.22.
	걸음아, 날 살려라...하루 1만보 힘들면 7천보 어떠세요 한겨레_2021.09.20.
경 제	빛더미 올라앉는 중소기업..대기업과 양극화 심화 경향신문_2021.09.17.
	연금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이득 시사저널_2021.09.21.
	코로나로 파산 신청 늘어...개인파산 5년만에 최다 연합뉴스_2021.09.27.
국 제	잠잠했던 '바람기'도 부활...봉쇄 풀리자 이혼서류 쏟아졌다 중앙일보_2021.09.17.
	"G2 마찰땀 한국, 對美 관계 우선" 86% 매일경제_2021.09.27.
	미 코로나 대유행 시기 살인 30% 급증...사상 최대 폭 증가 연합뉴스_2021.09.28.
트 렌 드	'신세계'라던 에어프라이어의 퇴장...너무 빠른 한국 트렌드 한국경제_2021.09.20.
	MZ세대와 '리세일' 열풍, 중고 시장에서 본 소비의 미래 동아일보_2021.09.18.
	민망함 넘어 코로나 생활복으로...레깅스 기업들 '잭팟' 한국경제_2021.09.22.

* 2020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 발표 관련 보도

[30대 미혼남, 기혼남보다 많아졌다… 부모에 의존 '3040 갱거루족' 65만명](#)

동아일보_2021.09.28.

[직접 생활비 버는 고령층 60% 육박…10년간 상승](#)

조선일보_2021.09.27.

[올해 인구도 빨간불…4차 유행에 결혼·이혼도 급감](#)

중앙일보_2021.09.29.

['반려족' 절반은 4050대..1인가구 26% 화재 무방비](#)

뉴스스_2021.09.27.

[20대 40% 부모에 손 벌리고..고령층 58% 자식에 손 안벌린다\(종합\)](#)

뉴스스_2021.09.27.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복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탐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JC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증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주)백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영관,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렬,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오뜸,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신규 후원 | 김기혁, 신명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